

문학으로 본 민주·인권·평화의 길

광주평화포럼, 5·18 43주년 기념
이산하 시인·손병현 작가 초청
오늘 평화인권시민학당서 토크
노래·시낭송·작품 낭독도



이산하 시인 손병현 작가

이산하 시인은 제주4·3을 다룬 장편서사시 '한라산'으로 필화사건을 겪었다. 1987년 11월 투옥돼 1년 여간 옥고를 치렀다. 당시 시인은 '국가폭력'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 국내외에 커다란 이슈를 제기했다.
손병현 소설가는 지난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우리 사는 동네'가 당선된 후 줄곧 80년 '5월문제'를 모티브로 소설적 형상화를 해왔다. 현재 그는 해남 백련재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산하 시인, 손병현 소설가 공통점이 있다. 두 문인은 한국 민족문학을 이끌었던 곡성 출신 조태일(1941-1999) 시인과 인연이 깊다. 이 시인은 조 시인의 경희대 국문과 후배이며 손 작가는 조 시인의 광주대 문창과 재직 시절 제자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제43주기를 맞아 광주평화포럼(이사장 김완 시인)이 주최하는 평화인권시민학당에서 이산하 시인과 손병현 작가 초청 문학 토크가 열린다.
17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문화공간 김빛과'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문학으로 살펴본 인권과 평화의 길' 행사에서는 두 문인의 토크쇼 외에도 노래, 시낭송, 작품 낭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완 광주평화포럼이사장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아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두 작가를 초청해 인권과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채롭게 생각하는 시간"이라며 "창작의 일선에서 개성적인 문학을 일궈오고 있는 두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민주와 인권, 평화를 다채롭게 조명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인인 이승철 한국문학사 연구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인인 김완 광주평화포럼 이사장의 인사말과 이산하 시인 소개, 손병현 작가 소개 순서로 이어진다.
이어 이산하 시인 문학토크가 펼쳐진다. 김여옥 시인이 이산하 시인의 장편서사시 '한라산 1, 2'를 낭송하고 이후 이산하 시인과의 이야기 마당에 예정돼 있다.
이산하 시인은 민청련 활동과 수배 당시를 들려주고 '한라산' 창작과정에 대해서도 풀어낼 계획이다.
이어 김여옥 시인이 시 '향소이유서'를 낭송하고 박양희 가수가 노래를 선사한다.
손병현 작가 토크쇼는 이효복 시인이 손 작가의 단편소설 '광장'을 일부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손병현 작가와의 이야기 마당이 예정돼 있다.
손 작가는 신춘문예 등단 이후 5월의 소설적 형상화에 주력해왔으며 5월을 주요 창작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문학계 일각에서는 손 작가를 일컬어 "오월문학의 작가적 계보를 잇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야기 마당이 끝난 뒤에는 이효복 시인이 역시 손 작가의 단편소설 '민주유해자'를 낭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손 작가는 최근에 발표한 소설집 '순천 아랫장 주막집 거시기'에 대한 작품 소개와 향후 창작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영웅 LA 공연 비하인드 공개

KBS '마이 리틀 히어로' 27일 첫방



KBS는 가수 임영웅(사진)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를 오는 27일 첫 방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이 리틀 히어로'는 지난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콘서트 '아이 히어로 인 로스앤젤레스(IM HERO - in Los Angeles)'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공연 전후 임영웅의 모습을 담았다.
총 5부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25분 KBS 2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 영화 7편 초청 '칸 영화제' 개막

김지운 감독 '거미집' 25일 상영...송강호 출연작 8번째 선택



'화란'

제76회 칸국제영화제가 16일(현지시간) 오후 7시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칸의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개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12일 간의 여정에 들어간다.
황금종려상 등 주요 상을 두고 겨루는 경쟁 부문에는 총 21편이 진출했다. 지난해 한국 영화 '브로커'로 주연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신작 '괴물'로 다시 한번 이 부문에 초청받았다. '괴물'은 고레에다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이는 일본 영화로 갑작스레 이상 행동을 하게 된 남자와 그의 어머니,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황금종려상을 2번이나 수상한 87세의 노장 켈로치 감독은 '디 올드 오크'(The Old Oak)로 칸의 초청장을 받았다. 칸영화제 사상 최다인 15번째 경쟁 부문 초청이다. '디 올드 오크'는 쇠락한 광산 도시의 술집 주인과 시리아 난민의 우정을 그린 영화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출신 난니 모레티, 미국의 웨스 앤더슨, 터키의 누리 빌게 제일란, 독일의 빔 벤더스, 중국의 왕 병 등 세계 곳곳의 거장들이 경쟁 부문에서 경쟁한다.
한국 영화는 경쟁 부문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총 7편이 다른 부문에 초청됐다. 비경쟁 부문에 진출한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은 오는 25일 밤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상영된다. 결자를 만들겠다는 강

박에 사로잡힌 김 감독(송강호 분)이 정부의 검열과 배우들의 비협조적 태도 속에서 촬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송강호가 출연한 작품이 칸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김장훈 감독의 '화란'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돼 오는 24일 관객을 찾는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이조직 세계에 발을 들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누아르다.
'칸의 단골' 홍상수 감독의 신작 '우리의 하루'는 감독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오는 26일 감독주간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홍 감독의 연인 김민희가 주연한 이 작품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무르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방문객들을 만나며 겪는 이야기다.
김태곤 감독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장르 영화를 소개하는 미드나이트 스크리닝으로 22일 선보여진다. 짙은 안개 속 봉고 직전의 공항대교에 고립돼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그렸다. 이선균과 주지훈 등이 주연했다.
비평가주간에 초청된 유재선 감독의 '잠'은 21일 상영된다. 잠드는 순간 겪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려는 신혼부부의 이야기로 이선균과 정유미가 분했다.
초청작 감독과 배우진은 대부분 칸영화제 현장을 찾아 관객을 만난다. /연합뉴스

도서유람단, 광주서 '책방 잔치'

대전·제주 등 8곳 독립서점
5·18 주간 맞아 방문
20일 광주극장 옆 영화의집

지난 2018년 남해에서 출발한 지역의 독립서점으로 구성된 도서유람단이 5·18 주간 광주를 찾는다. 지역을 순회하며 책을 모티브로 '책방 잔치'를 열었던 이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된 행사가 벌써 6년째를 맞았다.
올해 행사는 오는 20일 광주극장 옆 영화의집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다다르다(대전), 더 폴락(대구), 라바북스(제주), 북다마스(제주), 책방무사(제주, 서울), 책방심다(순천), 스토리북앤필름(서울), 라이트라이프(광주) 등 8곳의 유람단원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러브앤프리, 책과생활, 파종모종, 두루미선화 등 광주 4곳의 독립서점이 유람단원을 맞이하고 함께 행사에 참여한다.
각 서점들이 기획, 편집, 디자인한 독립출판물

과 큐레이션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만날 수 있는 북마켓이 영화의 집 공유마당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펼쳐진다.
이어 토크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오후 2시에는 '5·18 진실 혹은 거짓'을 주제로 박정은 초등학교 교사가 이야기를 한다. 3시에는 스토리북앤필름이 '나만의 책 만들기'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토크를 한다. 독립서점의 운영, 오픈 등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이모저모를 들려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에는 북다마스가 '북다마스 4년차, 어떻게 굴러가나요? 이동책방 운영 이모저모'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동형책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토크 프로그램은 당일 선착순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한편 광주극장에서는 광주를 찾는 도서유람단을 환영하고 본 행사의 의미를 이어주는 영화를 특별 상영한다. 수작업으로 평생을 북 디자인에 바쳐 온 75세의 기쿠치 노부오시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책 종이 가위'가 오후 7시30분에 상영된 독립서점 러브앤프리의 윤샛별 대표는 "도서유람



지난해 열렸던 행사 모습. <윤샛별 제공>

단은 전국의 서점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매년 순회하며 책과 관련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5·18주간에 광주에서 다양한 독립서점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열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